

## “美, 기독교 약해지지 않았다”

**교회 출석률 낮아졌어도 기독교인 수는 감소되지 않아  
 가정교회 출석률과 지역교회밖 영적활동은 더욱 늘어나**

최근 수십년 간 미국 교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교회 출석률은 점차 줄어든 반면, 교회 밖의 영적인 활동인 소규모의 제자 양육 또는 공동체 모임 출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미국 교회의 교세가 줄어 기독교까지 쇠퇴했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켈리 새텍이 쓴 '미국교회 출석률에 관한 7가지 사실'과 그 요약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20.4%의 미국인들이 지역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으나 2000년 들어 그 비율은 18.7%, 2004년에는 17.7%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서 2004년 사이 교

회의 출석자 수는 꽤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그 사이 미국 인구는 4,800만 명 증가했다. 성도 수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전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회 유형에 따른 출석률 추이를 보아도 미국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가톨릭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가톨릭 교회는 11%, 자유주의 교회는 10%, 복음주의 교회는 1%씩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에 따르면, 가정교회를 포함해 1996년 37%였던 미국인들의 교회 출석률이 천천히 증가해 2006년 47%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역교회에서의 성경

읽기와 같은 핵심적인 종교행위와 더불어 가정교회 출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침례회 에드 스테처(Ed Stetzer) 선교연구센터장은 “지역교회 밖에서 영적인 활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 양육과 공동체 모임의 장소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런대학교 사회과학 교수이자 종교연구소 설립자인 바이런 존슨 박사 연구팀도 작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류 개신교단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1960년대에서 2000년까지 약 49% 감소한 반면, 복음주의를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들은 오히려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정한 종교나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들이 증가하고,

많은 주류 교단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종교가 죽었거나 무신론자들이 증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존슨 교수는 “‘진리의 승리’(The Triumph of Truth) 저자인 베일리대학교 로드니 스타크 사회과학 교수는 갤럽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기독교의 인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적인 교회 출석률은 감소 중이지만 성도 50명 미만의 소형교회와 2천명 이상의 대형교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소형교회는 16.4%, 대형교회는 21.5% 증가했으며 이는 12.2%인 인구증가율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침묵의 시간이 왜 필요한가. 미혹과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침묵은 나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자신을 이길 힘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내가 옳도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는 대신 가끔씩 군중들로부터 멀리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갖자.

## “부목사는 담임목사처럼...담임목사 되면 부목사처럼”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제로 열려



US채플린연구소와 블루 미니스트리(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ECA한인연합회 등이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주제 아래 20일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만들어진 부목사 그릇으로 담임목사까지 갑니다.” 20일 열린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에서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란 주제로 강의한 김기섭 목사는 자신의 부목사 경험을 통해 느끼고 배운 바를 진솔하게 전

했다. 김 목사는 호주에서 전도사 10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 10년을 거쳐 현재 LA사랑의교회를 개척해 10년째 담임으로 사무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안 해 본 게 없는 부목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부목사 때 만들어진 그릇이 담임목사가 되어서도 그대로 가게 돼 있다. 지금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그릇의 100%를 넘어 120%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그릇을 빚어 능력과 은사를 담아주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가장 먼저 ‘배우려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듣는 마음’(왕상3:9) 즉, 배우려는 자세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 “연방정부, 성전환자에게 화장실 개방”

소설시큐리티 사무실 등...연방건물 9천 2백여 곳

美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전국 학교에 지침을 내린 이후, 이런 조치가 총무청에서도 실시된다. 총무청은 지난 목요일 “연방기관과 그 산하 단체는 화장실 및 관련 공간을 개인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련 시설이나 건물 내에서 트랜스젠더에게 개인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투여를 하고 있는, 즉 외관상 변화를 겪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외형이 남성일지라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어야 한다. 총무청의 이번 지침은 소설시큐리티 사무실과 법원 등 9,200여 시설에서 적용된다. 이 시설 내에는 약 1백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물론 이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앞서 연방교육부와 법무부가 전국 공립교육 기관에 이런 지침을 내릴 때 그들은 반차별 교육법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김준형 기자

**영성으로가는 성지순례(3) [13면 참조]**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HAS SCIENCE BURIED GOD?**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했는가?

**FRI, SEP 09**  
**7:00 PM**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487-5437 | E-mail: [events@nc-a.org](mailto:events@nc-a.org)  
 Guest Speaker: Dr. Hugh Ross Organization: Reasons to Believe (reasons.org) Sponsored by NEW COVENANT ACADEMY



10월 23일 개최되는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홍보하는 설명회가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 회개와 부흥 “이 땅을 고치소서”

한인교계 중심 다민족 기도회...10월 23일(주일) 오후 5시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해 11월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던 한인교계가 올해는 오는 10월 23일(주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한인교계는 2004년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2011년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2014년 버라이즌 아외극장 다민족 기도회, 또 올해 초 아주사 나우 기도회까지 미국교계의 초청을 받아 한 민족으로서 다민족 교계 행사

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타민족을 초청하는 형식의 대규모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최초로 열었고 올해는 두 번째다.

주최 측은 “이 땅을 고치소서(Heal Our Land)”란 주제로 미국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히 11월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자 행사 일정을 다소 앞당겼다.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

합회 회장을 지낸 한기홍, 송정명 목사,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를 비롯해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OC한인여성목사회 등 교계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년 단체인 순무브먼트의 조성주 간사,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정기정 목사, HYM의 더글라스 김 집사, 미스바철야기도회의 박형준 목사 등도 참석했다. 또 지난해 한

인교계가 처음으로 주최했던 다민족 기도회에 동참했던 흑인, 라티노, 중동계 목회자와 언론 관계자들도 설명회에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해에는 이 기도회에 3,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 행사에는 6천 명이 참석하길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다민족들과 함께 우리 한인 2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정명 목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기독교 대학에 관한 법 SB1146을 들어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역설했고 한기홍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주최 측은 기도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인교회는 물론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김권수 목사 인도 성경통독 세미나...LA비전교회와 ANC은누리교회에서 열려



LA비전교회에서 열린 성경통독 세미나 모습. ©전재룡



강사 김권수 목사.

### “글로벌선진학교 설명회”

장학정보 박람회도 함께 개최



크리스천 스쿨인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교감 우현석 목사가 학교소개를 하고 있다.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성경통독 세미나가 열렸다.

다름아닌 김권수 목사(ANC은누리교회)가 인도하는 성경통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13일에는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열리고 이어 20일에는 ANC은누리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이 세미나의 개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며 익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차례 열린 세미나에서는 각각 5시간에 걸쳐 성경 전체를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세미나는 김 목사의 인도에

따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줬다.

또한 각각의 개요와 시대적 배경, 성경적 배경, 그리고 거기에 섞인 일화 등 5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영인 기자

지난 20일 오후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에서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교감인 우현석 목사가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음성캠퍼스를 시작으로 문경캠퍼스도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총 재적 학생은 1,000명이 넘는다.

우 교감은 학교 소개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변영 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탕한 윤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글로벌선진학교 같은 학구적이고도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학생들이 많이 세워져 청소년들에게 신앙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리니티대학교 총장인 김희창 박사는 우수한 치과대학을 공부한 자녀를 통하여 개발한 미주 한인단체 장학금 정보와 신청 노하우를 200여 점의 자료들과 함께 공개 세미나를 인도했다.

그는 이 세미나를 통해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기관이나 교회들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봉사하고 리더십 인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우수한 인력으로 키우는데는 장학금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219-0649 (김희창 목사)  
\*이메일: hoichangkim@hanmail.net

#### 나성제일교회 <위로와 치유의 부흥집회>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에서는 이만생활에 지친 지역 교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와 치유의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심호섭 목사이다. 심 목사는 인디애나 주 미시안나한인

교회와 조지아 주 아틀란타성약교회를 담임했으며 현재는 알타이선교회 미국대표로 있다.

\*일시: 9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9월 1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30분

9월 11일(주일) 오전 8시,  
오전 11시  
\*장소: 나성제일교회 본당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문의: 213-388-7101

## 2016년도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 수강 신청 안내

- 1) 등록기간 : 8월 21~9월 1일 (선착순 100명)
- 2) 수 강 료 : 한 학기 \$50.00(점심식사 포함)
- 3) 가을학기 기간 : 9월 1일(목)~12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
- 4)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 5) 과 목
  - 1교시 : 한국전통무용, 생활건강크리닉, 뜨개질, 영화교실, 생활영어, 스마트폰, 컴퓨터 초급, 바둑
  - 2교시 : 컴퓨터 중급, 문예창작반, 성경파노라마(성경 인물편), 기타 교실, 노래 교실, 유희 및 수채화, 건강체조, 바둑
- 6) 등록문의: 학감 서미수 목사 T(213)820-9796  
황원일 전도사 T(213)369-4440  
국장 박용숙 권사 T(310)404-7070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지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에녹회 회원과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과 더 나아가 한인 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미주복음방송 새 사옥 이전 및 임종희 목사 출판 감사예배가 23일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 “은혜의 25년, 도약의 25년”

미주복음방송 새 사옥 이전예배...임종희 목사 출판감사예배 드러

미주복음방송(이하 복음방송)이 신 사옥을 엘에이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이전하며 도약의 2기 사역 시대를 열었다.

23일 오전 복음방송 신사옥 대 예배실에서 복음방송 관련자 및 남가주 교계지도자,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전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복음방송 이사 진유철 목사(나선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김영길 목사(5대 이사장, 감사한인교회 담임)의 환영사,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4대 사장)의 기도, 복음방송 헌신성장단의 특별찬양, 김영길 목사의 설교, 축사, 감사패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말씀을 전한 김영길 목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시편107편 1-3절)라는 제목으로 "선하시고 인자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25년을 맞았고, 새 사옥 새 시대를 허락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동서남북에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씌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민승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는 "오직 말씀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한 미주복음방송이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제도약을 마련했다"며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써가라"고 전했다

한기형 목사(남가주중경회장단 회장)는 "교포사회에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어달라"고 축사했다.

이어 설립자 임종희 목사는 "미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미주복음방송이다. 하나님께서 남가주에 복을 주셨다"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덕순 사장은 "사옥을 이전하

기까지 지난 10개월은 피말리는 시간이었다. 방송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여기까지 오게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 사분들과 후원자들의 헌신과 기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진 2부는 한혜진 전도사의 인도로 임종희 목사가 그간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나섰던 칼럼을 책으로 출간한 출판 기념식이 열렸다.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담임, 이사)가 출판감사를 위한 기도,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사)의 축사, 저자 인사말, Viki Lee 사매의 특별찬양, 임덕순 사장의 인사,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 “성령으로 구약을 알면 신약이 밝게 열려”

게이트웨이 신학교 CLD분교...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존신 교수

지난 20여 년 이상 성경을 가르쳐 온 존신 교수는 게이트웨이 신학교(전 골든게이트 침례신대학교)의 정형화된 리더십 개발 학교(Contextualized Leadership Development school, 이하 CLD)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과정의 목적은 성경을 단지 학문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학생들이기에 풀어놓아 주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있을 이번 가을학기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목회를 처음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시다-예수님께서는 보통사람을 불러 훈련시킨 후 권능을 입게하여 크고 원대한 일을 감당케 한다"며 "큰 일을 한다 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행할 것임을 고백하는데 있다"고 했다.

신 교수가 고등학교 수준이면 해낼 수 있는 사역 훈련 프로그램인 CLD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나 커뮤니티 변화에 사역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학교나 신학교의 가르침은 인문학적인 부분만에 집중돼 있다. 물론 이도 그리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CLD 과정은 성령사역에 중점을

두어 성경 지식을 사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개인적인 사역이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선교나 카운셀링을 하든, 그 어떤 영역이나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에서는 구약만을 강의하는데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신약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게이트웨이 신학교 CLD 한국어 과정이긴 하지만 수강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교재도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되어있다.

한편 이 CLD 과정을 마치면 CLD 수료증이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신학교나 다른 신학교의 석사 과정을 지원할 경우 10학점이 인정된다.

이번 가을 학기 수강료는 등록비 포함 285불이며 3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등록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수강기간은 8월 29일~11월 21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jshinglobalms@hotmail.com)로 하면 된다.

이윤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 신규임원들. 사진 우측 두 번째가 김인철 직전 총회장, 세 번째가 강성수 신임 총회장이다. ©이현욱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가 제2회 정기총회를 8월 23일 오후 4시 LA에 있는 나눔과 섬김의교회에서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강성수 목사(에플렐리복된교회 담임), 부총회장에 민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 담임), 여성 부총회장에 주재임

### 기독교복음선교회 정기총회

목사(살롬기도원), 총무에 엘리야 김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공동담임), 서기에 백선용 목사(LA감사하는사람들교회 담임), 부서기에 안기정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공동담임), 회록서기에 김진규 목사(코로나장로교회 담임), 회록부서기에 이현욱 목사(크리스천비전신문사), 회계에 장혜숙 목사(엘림장로교회 담임), 부회계에 한수지 목사(갈보리채플 담임), 감사에 송인 목사(미주크리스천신대 교수), 윤에스더 목사(주님의마음교회 담임) 등이 선출 및 임명됐다. 김준형 기자



세계성경장로교회 성도 및 당회원 명의의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이 교회에서 열렸다. 최근 발생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이며 이 교회 담임인 강신권 목사와 수석부회장인 김재울 목사(나성소망 교회 담임) 간의 불미스러운 폭언 및 폭행 사건에 대한 이 교회 당회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날 김성전 수석장로(사진·중앙)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목회자 사이에 폭언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에게 수석 부회장 김재울 목사가 행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세계성경장로교회 당회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밝힌다.

이번 일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후부터는 교협이라 칭한다) 수석 부회장인 김재울 목사가 회장인 강신권 목사에게 2016년 8월 11일(목) 오후 12시 40분경 한인타운 소재 로텍스 호텔 로비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인데 이 행위는 강신권 목사가 지인 2명과 함께 호텔 내 여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김재울 목사가 찾아와 강신권 목사를 로비로 불러내었고 로비에는 백지영목사와 정종윤목사가 있는 가운데 8.15 71주년 광복절 기념예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목회자로서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설과 심지어는 급소인 명치를 폭행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 일로 강신권 목사는 911 출동하여 앰불런스로 올림피아 메디칼 센터 응급실(59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36)로 후송되었으며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사모님과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번 폭행사태는 남가주 1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남가주 교협의 차기 수장이 될 김재울 목사가 현 회장에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더욱이 목회자의 신분으로 폭언과 폭행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김재울 목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8월 4일(목)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도 총무 박세현 목사에게 폭언으로 쌍스러운 욕설을 함과 동시에 힘으로 가슴을 밀어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며 교협과 교계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장본인입니다.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우들과 당회는 이번 행태를 동영상과 사진 또한 경찰 리포트를 근거로 명명백백히 알게 되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본 사건을 남가주 교계와 한인 커뮤니티에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김재울 목사와 같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자에게 교계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자회견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경찰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남가주 교협에서도 금번사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폭언과 폭행을 한 김재울 목사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징계와 재발방지, 그리고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교협차원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23일(화) 세계성경장로교회 교우와 당회원 일동

\*본 광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 시카고 할렐루아대성회가 18일~21일에 걸쳐 그레이스교회에서 열렸다.

## “하나님 나라와 관계회복”

### 시카고 할렐루아대성회...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시카고의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성령의 단비와 같은 집회가 열렸다. 시카고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할렐루아대성회가 18일~21일까지 열렸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회복”으로, 첫날은 ‘기적의 치유’로, 둘째 날은 ‘신앙의 새 아침’으로, 셋째 날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지막 날은 ‘마지막 사명’에 관한 메시지가 각각 선포됐다.

강사는 시카고에서 오랜 기간 목회했던 김의식 목사로 현재 그

는 한국 치유하는교회를 섬기고 있다.

시카고교협 회장 이철원 목사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웃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교회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교계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집회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Justin Bailey 목사 초청 청소년 부흥집회를 아가페장로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10일과 11일에는 레익뷰언약교회에서 시카고워십&유데이 청년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며 9월 30일~10월 1일에는 노스필드장로교회에서 맨하탄선교회 회담으로 섬기고 있는 최재원 목사를 초청해 Pop 시카고 청년 집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 Jesus retreat-RCA 차세대 리더 양육장으로

RCA 뉴욕지역 한인교회 2세들을 위한 연합수련회인 'Jesus retreat'이 14일~17일까지 3박 4일간 펜실베이니아 파인힐수양관에서 개최됐다.

1986년부터 시작,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Jesus retreat'은 그동안 RCA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2세들을 여름마다 책임져 왔으며 올해도 많은 2세들이 참석해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수련회에 참석, 4일간 이어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신앙이 깊어져 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스태프들이 1.5세와 2세대들로 구성되면서 차세대에 의해 준비된 2세 집회라는 의미도 더욱 커졌다.

강사는 올해 뉴욕 할렐루아 청소년대회 강사로도 참여하는 샘 원 전도사가 3박 4일간 “약속과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한인 2세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과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기회가 됐다.

Jesus retreat86으로 시작해 올해 Jesus retreat2016에 이르기까지 'Jesus retreat'은 교단의 2세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중요한 신앙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인교회 뉴욕지역 2세들의 연합수련회인 Jesus retreat 진행 모습.

주요 참석 대상은 6학년부부터 12학년으로, 대학부 이상부터는 스태프로 참여한다.

'Jesus retreat'은 30년을 지나오며 일반 2세들뿐만 아니라 RCA 내 차세대 2세 사역자들도 배출해 왔다. 뉴욕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폴 리 전도사는 8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로 빠짐없이 참석한 산증인이다.

폴 리 전도사뿐만 아니라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2세 담당자들이 모두 'Jesus retreat' 출신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 교단의 2세 사역을 돕는 일꾼들로 성장했다.

폴 리 전도사는 “초기 'Jesus retreat'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됐다”면서 “이 수련회를 통한 많은 은혜들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Jesus retreat'

에 대한 큰 비전을 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Jesus retreat'은 이제 30년 차를 맞아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인 2세 사역자들이 부족한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 배출된 신학생들과 교역자들을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민교회의 2세 사역자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Jesus retreat'의 목표다.

'Jesus retreat'을 총괄하고 있는 다니엘 김 목사는 “2세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역”이라면서 “수련회를 통해 2세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 기독일보]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 34. 에베소의 아르테미 신전

에베소의 자랑 아르테미(Artemis) 신전(저자주-세계7대불가사의중 하나이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보다도 네배나 큰 아르테미신전을 한번이라도 직접 본 사람이라면 그 찬란한 영광을 쉽게 잊지 못한다. 100개가 넘는 대리석 기둥이 햇빛을 받는 날에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으니, 아르테미는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 중의 하나이며 제우스의 딸이다. 달의 여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르테미를 로마인들은 디아나(Diana)라고 부르며 깊이 사랑한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Aristarchus)가 아르테미 신전에서 일어난 일을 회고하는 얘기는 몇 번을 들어도 긴박하다. 그는 3차 선교여행 중의 바울을 수행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2년 넘게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갈수록 회심자가 많아 결국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Demetrius)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 신전과 여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큰 손이었다. 그가 주도한 폭동은 신전과 연극장에 이르렀고 바울대신 잡혀간 아리스타고는 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에베소 서기장의 변론으로 극적으로 풀려났다는 이야기. 의사 누가가 예수복음서에 이어 데오빌로에게 쓴 행전 19장에 이 일이 자세히 적혀 있다.

밀레도도 내려와 바울을 눈물로 전송한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에 이어 디모데에게 교회지도를 부탁하였고 디모데 감독하의 에베소교회는 유대 바깥에서 가장 큰 기독교회가 되었다. 이 든든한 교회로 또한 노사도 요한이 예수의 유언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온 것이다. 그러니 에베소는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에게 꽤나 의미깊은 도시이다.

그러나 가슴이 수습해 달린 아르테미여신 조각상이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나는 여호와를 믿으니 세상 즐거움이 다 허망한 것인데도 나는 왜 이토록 세상을 계속 기웃거리는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긴 고별설교를 의사 누가가 적어 둔 대목은 내게 격려가 아니라 좌절을 남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여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텐트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매마아가면서도 어떻게 그리 확신하였을까. 시골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에 하루를 소진하는 나는 몹시 부끄럽고 허망하다.

35. 갈증  
40대 어느 봄날. 목이 마르다. 아담자손의 숙명인가. 오늘도 진득한 땀방울, 고단한 한숨. 앞으로 오래 산다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신 앞에 엎드려 목을 축이나 이내 찾아드는 갈증. 전채산 팔아산 밭에 묻혀 있다는 보물은 착각일지 모르다. 외람된 의심. 신과 이웃을 사랑하기 서툰 나는 그래서 더욱 마음이 불편하다. 신앙을 가진줄 알았는데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속을 알리 없는 봄별은 나뭇가지 사이로 초록이 되어 내게 사랑 손짓한다.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인가. <계속>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노동절 휴일을 맞이해 신약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가 열린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일시: 9월 5일 오전 8시부터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 \*참가비: 30불(식사 및 간식)
- \*장소: 가스윌연합교회
- \*주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 \*문의: 909-268-4279

## 기독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오병익 발행인: 이인규 고문변호사: 정찬웅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6년 예수인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온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오셔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16년 9월 18일  
**시간** 주일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인교회** CHRISTIAN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854-9624 www.cmc-12.com

# 그리스도의 심장

## 빌립보서 1:3~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所有)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임이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임이다.

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게도냐에 가서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

다. 영적성숙과 지옥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불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 헌금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교회야말로 가르친 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빌립보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임이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사랑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2.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증거(證據)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짓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약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으로 그 딸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하기로 하고 그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신앙고백들을 아버지가 읽게 되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를 결성하고 전도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댓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숟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삼 같은 것으로 퍼부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만 사용해야 선한 청지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Need color ?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Office &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364e / C284e / C224e**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Mobile Support	USB Print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미국 PCA 교단에 소속한 본 **갈보리 장로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에서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중·고등부(Youth Group)**  
**영어 목회부(English Ministry)**

- 자격조건**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체류에 이상 없으신 분.  
영어로 능통하신 분 (한국어 가능하신 분 우대)  
사명과 열정을 갖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실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1부
- 연락처**  
교육위원장(정석표 장로): T(443)243~0061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조 병래)  
www.calvaryus.org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 3년 이상 목회 경험 소유
- 미국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최근 가족 사진 첨부)
- 신앙 간증
- 목회 비전 (8.5" x 11" 3장 이내)
- 최근 일년 이내 설교 2편 (MP3, MP4, CD, 또는 DVD)

**보내실 곳**  
Email: seanshim@yahoo.com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of Portland  
Attn: 청빙 위원회  
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 97004

**포틀랜드 영락교회**

**LA 한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언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 **이장렬 칼럼**

목회자와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더 온전하게, 동시에 더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울러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어느 구절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9:1~10을 묵상하였고 이 구절이 가진 깊이와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물론 전에도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다. 이제 11살이 된 아들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그는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등의 제목으로 어린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스타였다. 그렇기에 그에 대해선 제법 잘 안다고 지난 수십 년간 자부했었다.

하지만 한절 한절,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 내려간 삭개오 이야기는 내게 너무나 신선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 브래넨 매닝의 회고록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게끔 만든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 그리고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아마 그가 그간 이웃에게 한 것 때문에 군중들을 헤치고 나아갈 용기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적어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럴

지난 주에는 캄보디아의 캄뽕 째에 있는 "국제하베스트선교회 (Harvest Mission International Cambodia)" 센터에 다녀왔다.

캄뽕 째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북북동 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있다. 15년 전에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만 해도 두 세동의 건물 뿐이었는데 지금은 20여 채 가까운 건물들로 완전한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김해준 선교사가 나병환자들의 자녀들로 시작했던 이 학교는 이제 6백여 명의 재학생을 둔 그 지방 명문 사립이 되어가고 있다.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신학교와 의료센터도 있다.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5%라고 하지만 15년 전에 비교하면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문 중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며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했다. 지도자들

**삭개오의 복음(1)**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용기가 있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미 알려진 얼굴, 그리고 지탄받는 악행으로 그런 용기조차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삭개오의 부(wealth)는 이웃의 궁핍과 굶어 죽음을 상징한다.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마을, 이 세리가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있던 그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세리장은 마침내 뽕나무에 오른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이 장엄하고 심각한 여정 중에도, 유대인지만 유대인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한 안타까운 영혼, 자신과 가족만 잘 된다면 이웃이 몰락하고 굶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자, 세리 삭개오를 찾아 오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삭개오"는 "정결하다" 또는 "무죄하다"는 뜻이다. 눈썹만큼도 '정결'하지 않은 자, 이웃들이 이름대신 "죄인"으로 명명하는 삭개오(7절)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오신 것이다. 그리고는 "정결한 자," "무죄한 자"라는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 잠시

삼천포 행 열차를 탄 것일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떠오르게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고 선언하신다.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일체 상종하지 않았다. 세리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그들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중대한 종교-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던가?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이웃들에게 유대인 취급 못 받던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넘친다. 그 때나 오늘이나 주님의 은혜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은혜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재할 복구시키지 못할 만큼 심하게 망가진 인생이나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낙담과 좌절 가운데 휩싸여 있든 예수님의 현존은 우리를 일으키시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은혜로 찾아오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캄보디아 선교여행**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이 150여 명, 아이들까지 260여 명이 모였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 매 시간 끝날 무렵에는 땀으로 목욕을 했다. 그래도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캄보디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니 감격스러웠다.

이번 선교여행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캄보디아 언어는 형용사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통역하려면 몇 개의 형용사를 더 사

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통역하려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한다. 보통 우리 말보다 서너 갑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외워보게 했는데 우리보다 네 배나 더 긴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두껍다.

우리 말과 영어는 번역해보면 그 길이가 비슷하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는 우리 말보다 더 간결하다. 동사 단어 하나에 전치사와 주어, 그리고 시제(時制)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언어표현이 간결한 민족일수록 더 친위적인 역사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겨준 김해준 선교사와 사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가나안의 영광과 허무**

노아의 후손 70명 중에서 야벳의 족속은 14명, 함의 족속은 30명, 그리고 셈의 족속은 26명이다. 가장 풍성한 출산의 복을 받아 번성한 족속은 함의 후손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함의 후손들은 인류 초기에 지구상의 문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최강자였다. "흑인은 저주받았다"는 말은 인류의 초기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 이룩한 놀라운 이집트 문명, 그리고 구스의 후손 니므롯이 이룩한 바벨론 제국의 정치와 문화는 함의 후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취이다.

지중해의 교류와 상업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던 도시들은 북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중해의 섬들과 가나안 지방의 해변도시이다. 그중에서 해상무역이나 내륙을 통한 교역의 중심에 있던 지방이 가나안이다.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고대 민족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예들이다. 이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의 서남쪽 끝에서 살아가면서 거대한 두 고대 문명,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결하였다. 인종적으로도 가나안 족속은 30명의 함의 종족 중에서 11종족을

이루었고, 이들은 가나안의 해변과 내륙에서 고도의 문명에 살았다.

그러나 노아의 저주, 즉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 9:25)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가나안의 후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윤리적으로 패역한 민족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과 폭력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백성이 되므로 유허 불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인 에덴과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지역은 지금도 타다가 남은 유허 덩어리가 남아있는 황폐한 지역이다.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11족속 중에서 내륙에 살던 사람들은 9족속이다. 이들은 출애굽 시대에도 7족속으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유허 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타락한 문명을 가진 종족으로 살아간다. 이상 숭배를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교훈과 경고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종을 초월하여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훼손하는 악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적하신다. 처음에는 경고하고 교훈하시지만, 한사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민족을 땅에서 뽑아낸다.

가나안 후손의 번성과 멸망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종국적인 허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http://www.PRTTOUR.com)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2016 최고의 가족여행”**

# 요세미티 캠핑 2박3일

“요세미티레이크 RV 리조트에서 BBQ 파티(스테이크/삼겹살), 따뜻한 커피 그리고 별보기”

**백유진가이드 + 캠핑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요세미티 캠핑**

**4인실 기준**

- [특전1] 요세미티 최고의 글래시어 포인트
- [특전2] 요세미티 폭포 트래킹 산책 / 타이오가 패스
- [특전3] 전문 셰프가 스테이크를 준비합니다
- [특전4] 캠핑트레일러/캐빈숙박(텐트가능)

**\$399** (3일) ▶출발: 9월3일 (토)



글래시어 포인트

‘기차, 온천 그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 샌디에고 기차여행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 라호어(쇼핑) / 샌디에고내항(크루즈) / 줄리안/엘림 핫 스프링(온천) / 캘리포니아 랜치(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하루 온종일 세도나에서 제대로 느끼고 즐기세요’

## 라스베가스 세도나

바스토우 / 라스베가스 / 윌리엄스 슬라이드라크 주립공원 / 오크크릭 캐년 물놀이 // 세도나, 볼텍스 // 몬테주마헬 // 팜스프링스

▶출발: 9월3일 (토)

**\$299**  
**\$249**

**남안 레인보우브릿지 & 호스슈밴드 3일 \$345**  
캐넌/파웰호수(크루즈)/엔젤로프 캐년/호스슈밴드 \$150상당 경비행기 포함 ▶출발: 9월3일 (토)

**중안 빅서 / 피나클스 국립공원 3일 \$345**  
산타바바라/빅서/카멜사이트/레드우드(7차)/피나클스 국립공원파소블라스(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후시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3일 \$345**  
위트니 포토/비숍/타이오가 패스/요세미티/프레즈노/모로베이(7차) ▶출발: 9월3일 (토)

**산비 엘로우스톤 4일 \$799**  
세계 간헐천의 70% 1만 피트가 넘는 산봉우리 45개 ▶출발: 9월2일 (금)

**푸른투어만이 가능한 추가요금 없이 벨라지오 숙박** 새로운 미서부 여행 TRENDE 푸른투어 only !!!

벨라지오 호텔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음악에 맞추어 화려하게 솟아나는 분수쇼와 라스베가스 최고의 쇼인 수중 서커스 쇼 “오” 쇼 공연장을 갖춘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입니다. 지상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환상의 벨라지오 리조트로 추가요금 없이 모십니다.

[추천]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2박 3일 ▶매주 화/토	<b>\$299</b>	[실속] 4대캐년 3박 4일 ▶매주 화	<b>\$599</b>
[BEST]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3박 4일 ▶매주 토	<b>\$389</b>	[특별] 4대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6박 7일 ▶매주 화/토	<b>\$689</b>
[실속] 미서부 5박 6일 ▶매주 화/토	<b>\$599</b>		

**오픈기념 이벤트!**

fitbit, 자동차, 여행용품

\*응모기간: 10월14일까지 추첨일: 1차8월 15일 2차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항공항공권 8월 15일 1차, 9월 15일 1차 추첨이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11111 고려대학교 4층) 또는 온라인

추첨자: 대한항공 LA지점장(우측) \*1차 당첨자 최은순님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여행**

## 비경의 화이트 마운틴과 심(深) 단풍의 퀘벡

- 한인여행사 최초 뉴햄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카마스커스 단풍로드>
-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
-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조블케이즈> 단풍 힐링하이킹

▶출발확정 10월 5일 **\$949** (항공/숙박/입장료 등 완전포함)

Imagine Your Korea e-world

## 단풍절정 한국일주 10일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등 단풍일주

▶10/20 **\$2,560** (항공포함)

**서부 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피닉스 4일 ▶8/29, 9/26 \$399**  
오크크릭캐년 예술인의마음 스코트제일 아리조나미션 사구어로 국립공원

**제9차 미국남부 대륙횡단 14박 15일 ▶10/20부터 \$2,59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플렉스텔, 세도나 투산, 칼사베드, 페코스, 산안토니오 사나판팡 NASA 미사사피 중간 유람선 뉴올리언즈 몽고메리, 아틀란타, 테네시, 워싱턴, 뉴욕

**HOLLYWOOD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할러우거리/로데오거리(차량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동부 본부** 내이아카라 유람선 포함

**\$500 상당**

오/직/푸/른 (7인831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부 옥스포트 특급숙박**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 4! 5!**

3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b>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b>		
4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b>3대 캐년 + 앤젤로프 캐년</b>		
5	5대 캐년	5일	\$599
	5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8일	\$899
	▶매주 월 <b>4대 캐년 + 모뉴먼트 벨리</b>		
실속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월, 목, 금, 토 <b>토요일만 벨라지오</b>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매주 화, 토 <b>(벨라지오 숙박)</b>		

**캐나다 본부** Wow~ 사토 프론트낙 호텔

북미의 파리 퀘벡을 가다 **퀘벡 단풍관광 5일 ▶매주금 \$1,499 \$1,099** (런칭기념)

▶캐나다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로맨틱한 퀘벡의 랜드마크 사토 프론트낙호텔 ▶전세계 사진작가로부터 가장 많이 찍힌 5성급 호텔, 유럽 궁중스타일의 인테리어

**한국 본부**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 4리무진 4강남소재 호텔숙박

독심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No! No! No! No!** 25인승 대형 디럭스리무진 최고급 호텔(특급), 지역별비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강원 3일 ▶토 **\$1,549**

플러스퍼펙트검진 \$470 건강검진 \$350  
신체측정, 인공, 구강, 심전도, 명안검, 흉부 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간기능, 당뇨, 심박수, 위내시경

골드퍼펙트검진 \$520 건강검진 \$400  
플러스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실속 미동부 5일 ▶매주 수/토 **\$749** (항공포함)  
(뉴욕/워싱턴 DC/마이아미)

미동부/천선 6일 ▶매주 수/토 **\$84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선)

미동부/보스턴 7일 ▶매주 수/토 **\$99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선 6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선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즈/지 퀘벡)

미동부/천선/보스턴/캐나다 10일 ▶매주 수/토 **\$1,24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올랜드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설 등 ▶매주 화 특별출발 9/3  
올랜드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아미 3일 **\$849 4일 \$949**  
올랜드/마이아미 4일 **\$1,399 5일 \$1,499**

**유럽** 여행설계사 데이트강과 함께하는

## 감성과 낭만의 스페인 일주 8일

**HOT! 3대 이색특식 / 스페인 8대 내부관광지 포함**

- 세계적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 유럽 3대 성당 - 세비야 대성당 관광
- 알함브라 궁전 4) 메스키타 대사당(내부)
- 산토도메고 6) 돌레도 대성당
- 가우디 최후의 걸작 - 파르미라 성가족 성당
- 동화 속의 세계 - 가우디 구엘 공원

▶특별출발: 9/19 **\$2,299** (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12일 ▶9/5, 9/19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아

**정통 동유럽 10일 ▶9/1, 9/15, 9/29 \$2,999**  
러시아/폴란드/헝가리/우크라이나/체코/보헤미아/슬로바키아

**동서유럽 20일 ▶9/5, 9/19 \$5,199**  
러시아/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아/노르웨이/핀란드

**미니 서유럽 8일 ▶9/5, 9/19 \$2,899**  
러시아/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아/노르웨이/핀란드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9/24 \$3,099** +항공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일 특식제공 -해물피스타/송아구이/홀리리케

**스페인/포르투갈 11일 ▶9/12, 9/26 \$3,199**  
리스본/세비아/마드리드/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9/12, 9/26, 10/3, 10/17 \$3,099**  
이스탄불/아테네/미코노스/파로스/에페소/데살로/아고리노/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8/27, 9/10, 9/24 \$2,799**  
밀라노/베네치아/피렌체/로마/폼페이

**푸라비다 코스타리카** 활산 운동 온천물로 즐기는 일주일 온천욕 **4일 \$850** +항공 **5일 \$825** +항공 **6일 \$1,090** +항공

**하와이** 쿡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튼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히룬 3일 **\$1,349**

**멕시코**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대안학교박람회에서는 주제강연과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외에도 각 학교별 부스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했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복음은 굿 뉴스다”

한국 목회자들 위한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6’ 개최

## “아이들 가슴 뜨겁게 하는 행복한 학교돼야”

제2회 경기도대안학교박람회 개최...인성교육, 기독교대안교육이 답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만연해지자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안학교로 쏠리고 있다.

그런 관심의 반영일까. 지난 20일 낮 서울장신대에서 열린 '경기도 대안학교 박람회'에는 지난해 3배가 넘는 500여 명 이상의 사전 신청자들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주제는 "인성교육, 기독교대안교육이 답이다"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기원 교장(밀알두레학교)은 인성교육을 통해 신체적 성장이 있는 후,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지적이고도 사회적인 성장이 이뤄질 텐데, 오늘날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이 실패한 원인은 가운데 영적성장에 대한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장은 "위기학생이 발생하게 된 원인 가운데 가정과 학교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자녀양육이 제대로 이

뤄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 교장에 따르면, 오늘날 초중고 학생의 약 24%가 위기학생이라고 한다(교과부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0). 이들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 가는데, 정 교장은 "군인들도 20%가 관심병사라더라. 위기학생들이 그대로 관심병사가 된 것이다. 이들이 또 사회로 나간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줘야 할 대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장은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가정의 파괴이다. 이혼율 증가 등으로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답지 않은 학교' 때문이다. 삶의 목표, 가치관,

비전 등을 가르치지 않고 입시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 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강조하고,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교육 원리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학교는 삶의 목표와 비전,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심어 '가슴이 뜨거워' 지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 대안학교 박람회'에는 그런 '행복한 학교' 23곳이 모여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특별한 교육 콘텐츠, 커리큘럼 등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장신대와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연맹,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이 협력했다.

김규진 기자

한국교회 목회자 초청 '아시아 리더스 서밋 2016(Asia Leaders Summit, 이하 ALS)' 세미나가 22일 서울 신사동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시아 지역 주요 목회자들이 선교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시작된 ALS에는 해외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타이완, 필리핀, 홍콩 등 총 10개국 20여 명의 기독교 대표들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정석 목사는 "그동안 ALS에서 만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목회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세미나에 한국 목회자들과 함께 나눌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에 있다"며 "이제 한국교회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아시아의 많은 교회와 함께 성숙을 향해 함께 나아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세션에서 '교회와 크리스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영훈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지도자의 영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진정한 제자도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라며 "십자가의 영성이 없기에, 오늘날 교회에 신자(believer)는 많지만 제자(disciple)가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세상 일에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가"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성령충만의 '현상'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는 '열매'의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진정한 성령충만은 자신에게서 예수



빌리 헨크스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령의 일은 예수님만 높이고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목사는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어야 한다"며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판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복음은 '굿 뉴스(Good News)'인데, 지금은 부정적 믿음이 팽배해 있다"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리더의 능력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 없이 교회의 성장은 없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빌리 헨크스 박사(International Evangelism Association)가 '제자를 세우는 자, 빈센트 레오 박사(美 남침례신학대학원)가 '21세기 선교전략, 진재혁 목사(분당지구교회)가 '리더십의 문화인류학적 이해, 마원석 박사(美 Oral Roberts University 특임교수)가 '오늘날 세계적 복음화의 맥락, 주어진 도전과 기회를 각각 발표했다.

ALS는 2013년 홍콩, 2014년 서울, 2015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모임이며, 이튿날인 23일 ALS 회원들을 위한 모임으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 “지역 분쟁해결, 교회가 나선다”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위해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 과정(Global Negotiation and Mediation Program, GNMP)'이 신설된다.

GNMP 과정은 전문화, 다양화

된 고도의 '최적의 분쟁해결(ADR: Appropriate/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분쟁해결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이하 아이팩)에 의해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오는 9월부터는 두 학기 동안 매주 월요일 3시간씩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제공된다. 특별히 목회자 과정을 위해 협상, 조정 및 중재 관련 실무 콘텐츠가 강화되었으며, 노재봉·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가 개설된다.

본 과정을 이수하는 목회자들은 아이팩이 인증하는 조정·중재인(Neutral)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조정·중재인 글로벌 명단 등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정·중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식으로 설립된 아이팩은 같은 해 9월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조정·중재기관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송경호 기자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지역사회 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협상 및 조정과정'(GNMP)을 신설했다.

#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b>IRUS</b>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amp;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li> <li>•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박문용 목사)</li> <li>•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li> <li>•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li> <li>•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li> </ul>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b>미성대학교</b>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HE 정회원, ATS 정회원</li> <li>• 기독교대학(US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li> <li>•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li> <li>•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li> <li>•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li> <li>•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407-4569</li> </ul> <p><b>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b>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master@gmail.com</p>	 <p><b>미주대한신학대학</b></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점진,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u.edu</p>
 <p><b>미주충신대학교</b>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b>복음대학교</b>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솔로몬대학교</b></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월드미션대학교</b>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p> <p><b>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b></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그레이스 미션 대학교</b>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

## “부목사 담임목사처럼, 담임목사 부목사처럼”

### 제2회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제로

[1면으로부터 계속] 1. 부목사 때에는 교회로부터 맡겨지는 사역을 가능하면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이 못하는 일, 안 해 본 사역이 주어 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한다. 그 래야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 교회 전체 를 이해할 수 있다. 부목사 때의 다양한 경험은 자신의 깊이를 만들어 준다. 김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교육, 청년, 성인 교구, 새가족, 선교, 주차, 제정 등 많은 분야를 담당했고 선임 부목사 를 거쳐 나중에는 임시담임까지 했다.

2. 부목사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 목사는 “이민사회 성도들은 목사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많아 목사들보다 한 수 위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고 그 리더십에 순종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목사들만 모른다. 겸손히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10년간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만 대략 1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솔로몬처럼 들으려고 하는 부목사가 있는 부서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도들과 싸우려 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관철하려는 목사로부터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목사 때에는 성도들이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해 주지만, 담임이 되면 잘 안 한다. 그러니 오히려 부목사 때 배울 사 주변서 자신에 대한 충고와 조언에 귀 기울이면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어 매일 매일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단5:25~27)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역하되, 마치 담임목사처럼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뉘집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수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장면(삼상 17:34~35)이다”라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신다”고 말했다.

3. 담임목사와 같은 각오로 목양하고 헌신하라. 담임목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목사가 죽도록 헌신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내가 담임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질문하라.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 같지만, 나중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담임을 청빙할 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당연히 당신을 추천할 것이다.

4. 다윗처럼 평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우리를 인터뷰하신다고 생각하라. 오늘이 사역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부목사 때 최선을 다하지 않던 사람이 담임이 되면 갑자기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릇은 부목사 때 만들어 놓는 것이다. 부목사 때 열심히, 그것도 좀 명칭하다 할 정도로 우직하게 사역한 사람들은 뭐가 잘 안될 것 같은데도 담임이 되면 목회를 잘한다. 그러나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부목사 때 잔머리 굴리던 사람은 담임이 되어서도 뭐가 잘 안 풀린다.

김 목사는 부목사들의 헌신을 강조했

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보상도 강조했다.

5. 과도한 헌신과 과도한 희생에서 목사의 권위가 나온다.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목사의 권위는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다.

6.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라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

부목사 사역에서 담임목사 및 동료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원만한 관계를 당부하면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했다.

7. 사역에서는 열심이 매우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담임목사에게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의중을 늘 물어보며 그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

8. 성도들이 담임목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래야 담임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이 감동하고 변화 받는다. 담임목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의 앞에서는 충언을 아끼지 말되, 성도들 앞에서는 담임목사를 높이고 존중하고 옹호해 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암살처럼 된다.

9. 동료 부목사들은 경쟁자가 아니다. 부목사 시절은 목회를 배울 기회다. 나보다 나은 사역자가 있다면 무조건 배워라. 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나중에 담임목사가 되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목회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또 그는 부목사 때 사역의 비전을 세우라고도 조언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영성을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 주셨을 때 성실히 감당할 수 있다.

10. 목회자에게 개인의 영성은 물론 사역의 영성이 필요하다. 사역의 영성, 즉 시스템의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중에 담임이 됐을 때 교회를 이끌 수 없다. 이 시스템은 곧 목회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 내가 만들어가게 될 교회에 대한 그림을 부목사 때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의를 이렇게 정리했다.

“부목사 때에는 담임목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면 오히려 부목사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은 사실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부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역 세미나에서는 김기섭 목사 외에도 이승중 목사(여개동무사역원)가 “이민목회의 출구”란 제목으로, ECA 교단의 스캇 레미네이저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 안수”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 채플린 사역, 노인 사역, 가정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다문화 사역, 캠퍼스 사역의 전문가들이 선택강의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 “제16회 창작성가의 밤”

제16회 창작성가의 밤이 8월 27일(토) 오후 7시 나성서부교회(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이는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매년 기독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창작성가를 발표하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도 12명의 작곡가가 13명의 시

인의 시에 곡을 붙여 15곡의 성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창작성가의 밤 당일에 이 성가들은 LA 지역 유망 기독교창단들에 의해 처음 무대에 올려진다.

협회 측은 “올해에도 은혜로운 시와 아름다운 곡들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었다”면서 “이번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찬양의 산 제사가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절친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외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사역을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재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정태원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정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0 EMO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8: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다모일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후 1:30 김영구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별민 무일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09:30 김중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말-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신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김범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Bryan Kim D.M.D.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라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뒷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영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4-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용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용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전 1:15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EM)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이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심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익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블리제틀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to St., Northridge, CA 91326

LA 예배처소  
주일(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영성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818)93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urch.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게이 퍼레이드에 참석한 동성커플의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동성애 선천적, 과학적 증거 불충분”

존스홉킨스대 교수진…143쪽의 보고서 통해 밝혀

매릴랜드 주 소재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진들이 최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신의학 분야의 전임 교수인 로렌스 메이어 박사와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인 폴 맥휴 박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통계학 및 생물통계학 교수 등이 작성한 14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22일, 과학기술 전문지 '뉴에틀란티스'에도 실렸다.

이들은 ‘성적 정체성과 성불쾌감이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다’는 주장, 또 ‘차별과 사회적 낙인이 동성애적 애착을 가진 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유일한 이유’라는 주장에 대해 각각 연구했다.

성 응답자의 80%가 이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어 박사는 최근에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적인 정체성이 유동적이며, 사람들은 자라면서 변화한다는 개념이 있다”면서 “이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같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과 융통성을 가진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쌍둥이의 일치율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분석했다. 학자들은 정신의학적 유행병 학자인 니콜라스 랭스트롬 박사와 동료들이 3,826 쌍의 일란성·이란성 동성애 쌍둥이들을 분석한 2010년 연구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쌍둥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성적 정체성이 개인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전자가 성적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느냐를 의미한다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인 누군가가 ‘원래 이런 식으로 태어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적 프로파일 동성애자가 되거나 혹은 동성애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일부 증거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3번째 부분에서 학자들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신경학적 차이점들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했다.

비록 일부 연구들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성을 가졌다고 밝힌 사람들의 뇌는 활성화 패턴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긴 했으나,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뇌 활성화와 성적인 정체성 혹은 자극 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정상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들은 매우 논쟁적이고 혼돈스럽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먼저, 보고서는 “이성애적, 동성애적, 양성애적 이질적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진행된 전염병학 연구를 자세히 살폈다. 과거에 진행된 이 연구는 유전적인 요소와 성적 정체성이나 행동들 간의 조심스러운 관계를 발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연구가 특정한 장르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태아의 성염이나 호르몬과 같이, 가졌던 생물학적 원인의 증거를 살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동성애적 뇌와 이성애적 뇌를 연구한 결과 일부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점들이 심리적 또는 신경생물학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선천적인 것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청년기건강추적조사(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가 1994년부터 1995년에 당시 7세부터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을 조사하고 13년 후 이들이 성인이 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다시 이들의 성적 지향성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어릴 때 동성애적인 그리고 양성애적인 애착을 가졌던 성인 남

성응답자의 80%가 이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어 박사는 최근에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적인 정체성이 유동적이며, 사람들은 자라면서 변화한다는 개념이 있다”면서 “이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같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과 융통성을 가진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쌍둥이의 일치율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분석했다. 학자들은 정신의학적 유행병 학자인 니콜라스 랭스트롬 박사와 동료들이 3,826 쌍의 일란성·이란성 동성애 쌍둥이들을 분석한 2010년 연구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쌍둥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성적 정체성이 개인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전자가 성적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느냐를 의미한다면,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 인 누군가가 ‘원래 이런 식으로 태어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적 프로파일 동성애자가 되거나 혹은 동성애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일부 증거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3번째 부분에서 학자들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신경학적 차이점들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했다.

비록 일부 연구들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성을 가졌다고 밝힌 사람들의 뇌는 활성화 패턴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긴 했으나,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뇌 활성화와 성적인 정체성 혹은 자극 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정상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결과들은 매우 논쟁적이고 혼돈스럽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기독교 약해지지 않았다”

교회 출석을 낮아졌어도…교회밖 영적활동은 늘어

[1면으로부터 계속] 그러나 성도 수가 평균 124명인 중형교회(100명 이상 300명 미만)는 1% 줄었다.

스테처 박사는 “오늘날 대형교회는 소그룹과 공동체를 강조하며 소형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서 “성도에게 양쪽의 좋은 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바나그룹을 설립한 조지 바나와 현재 조직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키네먼은 ‘처치리스’라는 책에서, 1984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연구했다.

저자들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실시한 18차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늘날 미국 기독교의 인구 분포를 4가지로 분류했는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49%, ‘교회에 최소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8%,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33%,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은 10%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인·비기독교인 비율은 50(교회 안 사람들·churched) 대 50(교회 밖 사람들·unchurched) 정

도인 셈이다.

특히 4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인 그룹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었다.

저자들은 교회 밖 사람들의 생활 방식부터 우선순위, 삶의 목표, 가족에 대한 생각 등을 분석해 이들에 대한 접촉점을 모색했는데, 특히 교회 밖 성인의 25%를 차지하는 ‘회의론자’에게 효과적인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우편물이나 광고, 전화 홍보, 홈페이지, 유튜브 초청 등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신뢰하는 친구나 교인 가정으로의 초청,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정기적인 사역, 교회 후원으로 열리는 콘서트나 세미나 등에 초대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었고, 가시적이며, 기억에 남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 안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충족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갈릴리 고고학협회 연구팀이 예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 잔해를 발견했다. ©페이스북

# “예수시대 추정 회당 잔해 발견”

## 남부 갈릴리 탈롯산 근처...예수생애 증명해줘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에 대한 묘사들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이스라엘 회당의 잔해들이 발견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갈릴리 고고학협회 키너렛 연구소의 모티 아비암 수석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예수가 한 때 그 회당에서 설교한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와이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발견된 첫 번째 회당이다. 우리가 신약성서에 관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정보 즉, 예수가 갈릴리 촌에 두루다하며 설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발견은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장소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모두에게 관광 명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발굴팀이 발견한 이 회당은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에 적합한 장소로 사용되면서, 제사와 예배를 위한 목적보다 (경전을) 읽고 전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회당으로 보인다.

재커라이어스 트러스트 사무소의 시몬 에드워드는 “이 발견은 해당 연구가 성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에 때문에 ‘흥미로운 소식’이었다”고 전했다.

에드워드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주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당의 잔해는 성서가 좋은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했다.

성경을 신뢰하도록 하는 한 가지 좋은 이유는 역사적인 기록물마다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성서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 시험 중 하나가 (기록물의)내용이 고고학적 증거와의 일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에드워드는 “만일 성서가 단지 가공된 이야기라면, 우리는 고고학이 고대 세계에 관한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실제로 어떤 점에서 성서가 틀렸는지 보여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확하게 그 반대이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예일대 전 고고학 교수였던 밀러 부로우스가 한 말을 인용해 “고고학적 작업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왔고,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장소를 발굴하면서 성경에 대한 존경심이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 증거의 빛에 비춰볼 때, 성경은 현실의 삶과 무관한 좋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으로 가볍게 묵살될 수 없는 책이다. 이번 최근 발견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 역사 안에 실제 사건들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발견물들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심어주고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소장한 앗시리아 릴리프.

#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 되살린다”

## 앗시리아 크리스천들...아우리 교육센터에서 가르칠 예정

예수가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의 고대 방언인 시리아에 건립될 예정인 새 교육센터에서 사상 최초로 되살아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터키 국경에서 가까운 북동부 시리아의 카미실리시 아우리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앗시리아의 신(漸) 아람어인 시리아어를 가르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 말폰 센터장은 아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센터는 시리아 언어가 가진 여러가지 주제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리아 언어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앗시리아 공동체가 자국의 언어교육을 시작하고 문화 센터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 시리아에서 아람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센터에서 시리아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 미르나 살리바는 “시리아어와 앗시리아어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

화와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이같은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보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부 앗시리아 교회는 그 역사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앗시리아 크리스천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땅은 오늘날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 그리고 터키 남동부에 걸쳐 퍼져 있는 땅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수백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시리아인들의 내전과 IS(이슬람국가) 세력의 증가로 이 지역을 탈출하고 있다.

카미실리 역시 최근 몇달 간 수많은 군사 공격을 받아왔다.

IS는 지난 12월 도시에서 발생해 12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3건의 테러 공격과, 지난 6월 시리아정교회 수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사상자를 냈던 교회 내 자살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합창) 토 9:30AM-10:00PM  
대형헌년부College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철아카데미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다들날) 7:00am 토요일 7:00pm 토요일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 & Puente)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바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30  
토요일 금요일, 예프타스콜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 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학과) 청년부 수요일장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wtechni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재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배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 영성침례: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미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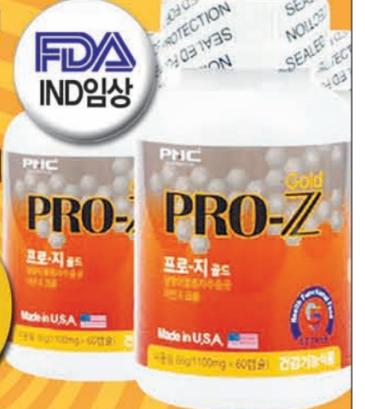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

# 광야의 향기 아라바(Arava)와 팀나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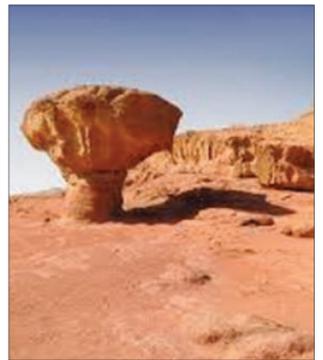
팀나 국립공원에 있는 재현된 성막.



아라바 광야에 있는 팀나 국립공원 입구.



아라바 광야 길 씻김 나무.



팀나 국립공원의 기묘한 바위들.

가진들, 사막, 광야, 황무지, 황야가 주는 느낌은 쓸쓸하다 못해 삭막하기만 하다. 보통 순례객들이 새벽 1시쯤 일어나 시내산을 오른다. 밤새 걸어 오르는 길은 힘들기만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생각하며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간다. 요즘은 나다가 빈번하게 왕래하며 순례객들을 태우고 정상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해발 2,285m(7,496ft)의 시내산은 젊은이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산이다.

사실 시내산 등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목적이지만, 사실은 시내산 일출의 장엄함을 경험하기 위한 측면도 크다.

필자가 시내산에 처음 오른 것은 1993년 2월이다. 얼마나 애써 올라갔는지 모른다. 해가 뜨기 전 잠깐 기도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행 중 기도 순서자가 너무 은혜에 취해 길게 기도하는 바람에 일출의 장관을 놓친 경험이 있다.

지금도 일출 보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은 없다. 오히려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급송아지를 앞세워 춤추고 난리난 곳이 더 인상 깊게 남아있다. 어쨌든 그 시내산 등정 때문에 사람들이 과감치가 되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 에다 삼엄한 이스라엘 국경 통과가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대다수의 팀들이 에일랏에서 숙박하지 않고 일정 관계상 광야에 있는 아라드(Arad)나 사해(Dead sea)까지 올라온다. 그러니 숙소까지 도착하는 동안 졸곯 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야의 향기를 맞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다. 하긴 이집트 쪽에서 시내산을 횡단하면서 신물나게 광야를 본 것도 있었을 것이니 광야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본다. 그러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광야를 제대

## 성막이 재현되어 있는 팀나 국립공원 법래를 만든 씻김 나무가 있는 아라바 광야길

로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왜 광야가 축복인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 받았고, 광대하고 위험한 땅에서 견디어낸 결과(신8:15/렘2:6)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인격이 변화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신33:1).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3대 족장의 주거지도 광야였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 전에 유대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 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마4:1) 광야는 훈련장으로 쓰임받았다. 광야(구약)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릴리(신약)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다.

광야를 히브리어로는 "바미드바르"라 한다. 바미는 어디서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다바르" 곧 말씀이라는 뜻이다. 광야를 10분만이라도 걸어 보라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람과 돌, 그리고 뜨거운 태양 밖에 없다. 인간은 광야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광야에서도 소망이 있나?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곧 광야는 어디서부터 말씀이 왔느냐를 가지고 있는 바, 말씀은 오직 하늘로서 하나님 그분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교 등 세계 3대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100년 간 광야에서 살면서 우물 파는 일로 전 생애를 걸었다. 이것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지중해 해안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 세펠라(지중해 해안에서 유대산악 지역사이) 지역 등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고, 유대산악지역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음에도 굳이 아브라함은 브엘사바(Beersheba)

광야를 고집했던 것은 광야를 통과해야 메시아 되신 구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에일랏에서 사해까지 약 220km(136마일)가까이 길게 누어있는 아라바(Arava) 광야는 고대로부터 대상들이 통과하던 길이기도 하다. 구약시대의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단부터 홍해까지였지만 지금은 홍해에서 사해까지의 구간을 아라바 광야(Arava desert)라고 한다.

황폐한 곳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에일랏에서 사해까지 2시간 30분 정도 가면서도 볼 것이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광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좋다. 광야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들의 광야 생활과 다윗과 그의 동료들 세레요한의 외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 예수님의 광야의 시련을 다시 생각해보자.

아라바 광야를 지난 때 구름기둥 불기둥만 생각하지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만 생각하지 말자. 신발이 헤어지지 않음만 생각하지 말자. 광야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광야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사 35:1~2). 또한 갈릴리의 푸름을 이해하며 찢고 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시간 30분의 짧은 광야 여행에서 배우는 겸손과 인내, 순종과 믿음 알게 된다면 성지순례는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차장 밖으로 스쳐지나는 광야의 모습들이 나오는 무관한 특이한 지형이라는 생각뿐이라면 이미 성지순례의 절반은 실패로 봐도 무리되지 않는다. 그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자.

에일랏에서 37km쯤 북상하면 왼쪽으로 검붉은 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팀나 국립공원(Timna park)이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구리 광산이 있었고 이곳에서 그 유명한 구리베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리베이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는 광야 40년 역사에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흑독한 형벌이었고 이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임을 안다.

팀나에는 고대의 성막을 재현한 것이 있는데 성막의 설명을 예수 믿는 유대인이 하는 아이러니도 있다.

팀나에 있는 성막 재현장을 둘러보니 성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한된 지면 사정상 성막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성막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성막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순례여행 중 더 많아지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꼭 팀나에 들려 성막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으면 한다.

그 외 텔 하이(Tel hi) 라는 동물원이 있다. 광야의 동물들을 모아놓은 소규모 동물원으로 팀나를 지나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에일랏에서 사해까지 오는 동안 4개의 휴게소를 지나는데 그중에 에일랏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요바타(Yovata) 휴게소는 요바타 키부츠(Yotvata kibbutz)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로서 꽤 괜찮은 시설로 먹거리와 쇼핑거리가 있다.

필자가 잘 아는 어느 후배 목사가 성지순례 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이 재학하던 신학교 구약학 교수가 한 번은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법래를 만드실 때 백양목도 소나무도 전나무도 아닌 씻김 나무(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나무, 소나무, 백양목도 못보고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 하시

면 법래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후배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묵회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 전나무도 없고 소나무, 백양목도 없고 씻김 나무만 있어서 "속았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실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단다. "너 있는 곳에서 잘 하라"라고.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 성지순례를 오지 않았다면 평생 소나무, 전나무, 백양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씻김 나무를 사용하여 법래를 만드셨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지순례의 묘미는 이런 데 있지 않나 싶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리, 인물, 풍물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깊이 관찰함이 필요 하다. <계속>

◆서병길 목사는 전북 전주 대학교 법학사 및 행정학 석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 역사 및 히브리어 수학, 플러신교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이다. GMS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12년 사역했고, 임마누엘 대학교, 센트럴 신학대학교, 순복음직영신학교에서 구약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우니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 취득 후 CA 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우리나라의 의원을 운영하며 새 하늘신교 교회와 이스라엘 신교회를 동시 에 섬기고 있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신교회**

100개 \$320 2017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다양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커스텀 달력도 제작해 드립니다.

심방 및 선물용 액자 (병원, 개업, 가정 심방용 말씀액자) \$30

말씀이 기록된 심방용, 선물용 캔버스 16x16:\$30 커스텀제작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8x24, 20x30등 다양함)

각종사인 전문 실내의 차량용사인 \$15 \$160

TOPMEDIAUSA MEDIA TOTAL SOLUTION

주님미디어 닷컴 junimmedia.com

TOPMEDIAUSA.COM E-mail: topmedia153@gmail.com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저희 탑미디어는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배너 36x120 \$50

한영배너 (스탠드 포함 \$65)

각종 임식배, 감사배 \$50

각종 전도용품

강단 배경 디자인 및 제작

전도용 시디 / 앨범 제작

디자인+시디봉투1000장 +폴칼라인쇄시디1000장 \$300!!!

VBS 및 각종 행사 선물용 티셔츠 폴칼라티셔츠인쇄 \$6.5

주보/ 헌금봉투 및 각종 인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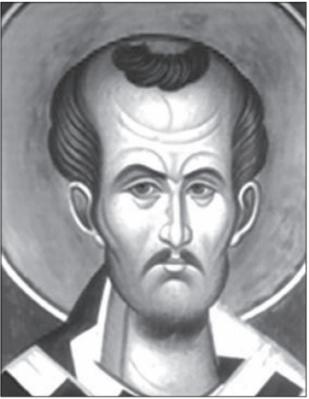
주보1000장+헌금봉투1000장 \$300!!! (디자인 무료!!!)

교회로고이름+주소+전화번호 차량용스티커 2개 \$50 !!!



•정연호 칼럼

# 유대인과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3)



존 크리소스툼.

### ◆ 존 크리소스툼

존 크리소스툼(Chrysostom, 349-407)은 가장 위대한 헬라 교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황금의 입"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적대감을 가졌던 교부였다. 그는 로마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에서 목회했다(행 11:26). 당시는 여전히 기독교의 이상적인 권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독교는 여전히 헬레니즘과 아리아니즘(Arianism), 그리고 유대교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기독교의 제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제의와 관습을 좇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소스툼은 그의 교구 사람들이 사뱃을 지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랍비의 설교를 듣는다는지 랍비들에게 작물을 축복해 달라고 한다든지 병들었을 때 유대인 의사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

### ◆ 유대인은 마귀와 춤추는 자

크리소스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의 관습을 좇는 자들을 "병든 자요 미친 자"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가까이 지내거나 그

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인류의 정상적인 일원이 아니라 "마귀와 춤추는 자들"이며 "선천적으로 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또 온 이후에도 악했고, 그들의 악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신(그리스도)을 죽인 자들로서, 이는 범죄 중의 범죄라고 했다. 그들은 탐욕주의자들이고 마음이 무딘 자들이며 세속적이고 육적인 자들로서 "이 세상의 일에 빠진 자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며, 약탈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저버린 자들, 도둑들, 무역에서 속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돈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자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했다.

### ◆ 하나님에 회당을 버리셨다

크리소스툼은 "하나님이 회당을 버리셨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회당은 사창가나 절벽보다도 더 악한 것이며, 도둑의 소굴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러운 야수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회당은 거룩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회당은 사악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지나쳐야 한다고 했다. "강도의 소굴이요 마귀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당에 관한 그의 설교를 들어 보자: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모인 회당에 십자가는 치워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여기서 아버지는 무시를, 아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거부되고 있다. 유대인들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에서보다 더욱 큰 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런 회당들을 부르기에 더욱 적합한 이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성전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사창가나 죄의 요새, 마귀가 머무는 곳, 또 마귀의 성, 영혼의 파괴 장소라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구약학(유대학)

고 부르고 것보다 그것을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붙여 보라..."

### ◆ 유대인들은 도살되기에 적합하게 자랐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마땅히 받을 고통의 예(ex-ample)로, 유대인들을 살려 두고 그들이 영원히 방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크리소스툼은 어거스틴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용 가치도 없다고 했다. 쟁기를 끌기를 거부하는 동물을 죽여야 하듯이, 유대인들은 도살되기에 적합하게 자랐다고 하였다. 그는 누가복음 19장 28-34의 비유에 나오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걸로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비록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중 최상"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소스툼은 누구보다도 후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가였고, 따라서 히틀러는 그의 반유대적인 사상을 높게 평가하였다.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대인은 일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큰 목적 없이는, 결코 생산적인 창조자로서 일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비생산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이용하고 즐기며 일한다."

### ◆ 크리소스툼: 비잔티제국(동로마제국)과 정교회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신학적 스승

리소스툼의 반유대적 입장은 비잔틴시대 황제들의 반유대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반유대적인 설교는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그래서 1100년 러시아에서 첫 번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8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학교와 신학교에서 크리소스툼의 반유대 설교를 가르쳤다.

유대교의 종교적·경제적·법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들은 결국

에 기독교 신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황제의 법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는 테오도시안법으로 구체화되었다. 황제들은 법을 제정했고, 교회는 황제들을 조종했다. 승리의 신학은 교회의 유대인 정책을 결정했다. 교회와 기독교 황제들은 유대교를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회당을 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중세에 종교재판을 강요했으며, 탈무드를 불태우도록 했고,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가능케 했다.

유사한 불의와 핍박이 비잔틴제국에서 일어났는데, 330년부터 콘스탄티제국이 1453년 터키에서 의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비잔틴제국에 살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사상가들과 국가와 사회에 의해 핍박을 받고 죽어갔다. 600만이었던 1세기의 유대인 인구는 12세기에는 10만 명으로 떨어졌다. 동유럽의 신학자들은 서방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반유대신학을 반복했다. 그리고

다. 구약성경이라는 경전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갈등관계를 맺어 왔다. 이 갈등관계는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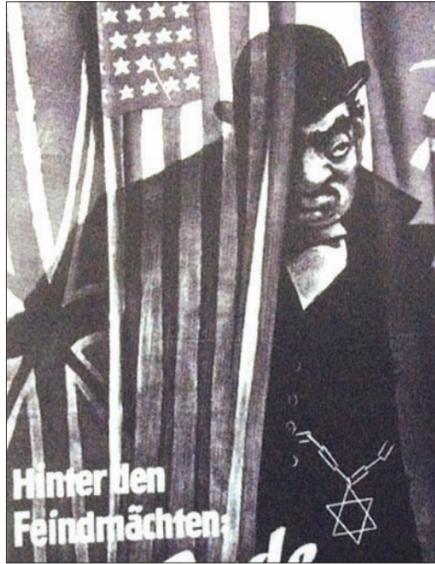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부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서구신학을 지배해 온 신학이 대체신학이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기독교의 뿌리로서의 유대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신학이었을 뿐 아니라, 유대교와 유대인을 악이요 마귀적인 존재로 보는 출발점이 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교부들은 모든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그들의 악한 특징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이 설사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불신앙의 역한 냄새"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는 유대인들을 이단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태생적으로 죄가 많은 유대인의 악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어떤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와 그리스도를 죽인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의 부모 안에 있는 유대인의 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어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제롬은 모든



모든 악한 일의 배후는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그림.

동로마제국, 즉 비잔티제국은 서로마제국에서 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했다.

### ◆ 교부들: 반유대적 입장의 신학적 기초 정립

기독교의 첫 다섯 세기, 곧 교부시대에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놓인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교리 등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초로서 반유대적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종종 갈등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 친한 벗이 되지 못하면 원수로 전락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운 사이'일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역사적으로 친한 벗이 되지 못했

유대인은 가룟 유대이고 태생적으로 주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악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존 크리소스툼은 유대인에게는 속죄를 위한 어떤 기회도 없다고 보았다. 주후 7세기의 '세빌레이의 이시도레(Isidore of Seville)'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라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악한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8세기의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사뱃(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치의 반유대인종주의의 모든 초기 형태가 교부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 <계속>



반유대주의로 인한 방화로 불타는 회당 사진.

제24차  
9월 5일 하루 신약통독

##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6년 9월 5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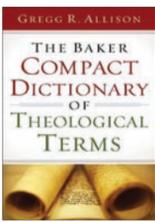


### 신간 추천

#### The Baker Compact Dictionary

Gregg R. Allison | Baker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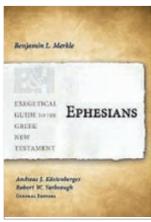
미국 남침례교 신학 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로 있는 그레그 앨리슨의 신학용어 사전. 이 사전의 주요 특징으로는, 상호 참조(이건 그리 큰 특징은 아닐 것이다), 어원(이게 아주 중요하다), 부록 형태로 제시되는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용어 번역(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제목 그대로 콤팩트한 사전이다. 신학생들과 출판계 편집자들이 아주 반길 만한 책이다.



#### EGGNT(Ephesians)

Benjamin L. Merkle | B&H Publis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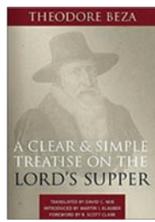
스코트 듀발(J. Scott Duvall)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에베소서 주석 목록에 아놀드(Arnold), 회너(Hoener), 오브리언(O'Brien)의 주석 외에 EGGNT 시리즈의 이 책을 추가할 것이다.” 듀발의 이야기처럼, 복음주의 진영에서 아놀드, 회너, 오브리언의 주석과 F. F. 브루스의 주석은 가장 선호되는 주석이며, 이 책에서도 빈번히 인용된다.



#### A Clear and Simple Treatise....

Theodore Beza | Reformation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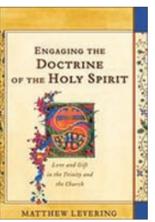
1559년 기록된 칼빈의 제자인 테어더 베자의 성찬에 관한 책으로, 당대의 성찬에 대한 단순한 상징설·기념설에 반대하여,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을 통해 칼빈의 입장인 ‘성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참된 교제’임을 주장하는 책이다. 베자의 라틴어를 영어로 세심하게 번역한 본서는 요아킴 베스트팔과의 논쟁이라는 배경을 자세하게 서문에 설명고 있다.



#### Engaging the Doctrine of ....

Matthew Levering | Baker Academic

본서는 현대의 성령에 대한 관점들을 반박하며, 어거스틴 전통에서 고전적인 성령의 교리에 대해 역사적으로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성경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아퀴나스), 종교개혁자들, 근현대 조직신학(가톨릭 및 개신교 등) 및 성경신학자(제임스 던, N. T. 라이트 등)들을 조사한다. 본서는 추기경 이브 콩가르 이후 가장 최신의 포괄적인 성령론 연구서다.



## REVIEW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죽음 통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책”

### 잘못된 내세관으로 무기력한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경종

“현재의 삶에 과묵히 지내는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마주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이 책의 메시지에 조응하기 기원할 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나그네 인생길로의 부르심을 깨달아 더욱 충만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기도 문화에 대한 탁월한 진단과 깊은 성찰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귀의 기도> 저자 김영봉이 이번에는 장례설교 집으로 우리를 찾아왔다.

저자 자신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인생의 헛바퀴에서 멈추

어 서서 죽음의 문제와 씨름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에서는, 상실과 죽음에 관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저자 특유의 쉽고도 따스한 문체로 하나씩 밝혀 준다.

자연사, 병사, 자살, 이른 죽음, 사고사 등 다양한 인생을 마주하며 고투하는 진솔한 목자의 심정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실존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신약학자로서의 면모도 돋보인다.

저자는 본문 중 닫는 목상을 통해 “만일 삶의 목적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는 데 있다면, 죽음은 재앙이 될 것이다. 삶의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다면, 죽음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김영봉  
MP | 236쪽

완전한 실패가 될 것이다. 지식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려면, 죽음은 불행이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에 있다면, 죽음은 결코 재앙도, 실패도, 불행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다.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우리가 생명을 바칠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사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죽음의 얼굴을 대면한 당시 작성한 목상글 2편과 질곡어린 삶을 아우르는 16

편의 장례설교, 아울러 목회자들을 위한 유용한 장례설교 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죽음을 등에 지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숨가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저자의 글에 귀 기울여 보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현재의 행복은 유보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오늘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을 곁에 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한 소중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영인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북스리뷰]

## “30년 바울 연구의 현 주소”

바울 신학을 위한 ‘기본 교과서’

데이비드 호렐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엑시터(Exeter)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 연구 입문〉은 호렐의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aul 3th(2015)’를 번역한 것이다.

1판은 2000년, 2판 2006년, 그리고 3판은 2015년에 출판됐다. 꾸준히 읽고 있는 책으로, 3판을 CLC와 이승호 교수가 출판해 소개했다.

〈바울 연구 입문〉은 한 마디로 말하면 “바울 신학을 위한 기본 교과서”라고 정의하고 싶다. 최근 30여 년에 걸쳐 펼쳐진 바울 신학의 상황에 대해, 요약과 객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아주 좋은 교과서이다.

이 책은 교과서는 저자의 의도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자료로 구성된 문장을 제시하려 시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접하는 독자는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교과서’이다.

기독교에서 왜 바울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의 영향력, 즉 ‘거대한 산이 된 바울’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절대적 위치에 있고, 바울서신(진정성 있는 서신 7개)이라는 개인 저술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갖는 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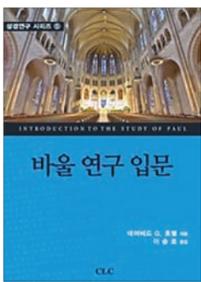
본 저술은 바울이 생애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저자가 결정하지 않고 연구 상황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유력한 학자들의 연구물을 집대성하여 핵심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

저술의 객관성은 추천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독서를 하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노력도 잘 보인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로 가는 서지 목록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로 연결된다.

서지 목록은 전문적인 연구자



바울 연구 입문  
데이비드 G. 호렐  
CLC 1312쪽

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다.

호렐은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 체험’에 대한 이해가 점예하게 구분되는 것을 제시했다. 개종(conversion) 사건인가, 소명(calling) 사건인가? 이는 바울을 이해하는 첫째 단계이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횡수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울의 초기문서는 데살로니가전서인가, 갈라디아서인가? 이런 변수를 판단하면 바울을 이해하는 방향성이 두드러지게 변화한다.

호렐은 두 견해를 모두 제시하면서 독자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판단이나 연구 방향 결정은 독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호렐은 바울의 사상의 핵심 주제에 대해 각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한다. 본 저술의 특징이다. 책을 읽는 독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시원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상당히 답답한 면도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제시하기 때문에, 정작 바울의 핵심 주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자의 견해에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바울 연구 입문〉에서 주된 논점은 ‘새관점’이다.

유대인에 대한 관점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전환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91쪽). 요세푸스에 의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원 등의 유대교 사회에 대

한 이해에 대해 새관점은 유대교를 언약적-신율주의로 전환시켰다. 유대교 이해에 대변혁을 제시한 것이다.

호렐은 새관점과 김세윤의 격투에 대해 꾸준히 제시한다. 김세윤 교수가 세계적으로 바울 신학계에서 한 축을 담당한 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새관점 학파로 인한 거대 변혁을 막을 수 없다. 학문은 옳고 그름보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냐가 시대를 주도한다.

지금 신약학계, 신학계는 새관점 학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호렐도 그 거대 물결에 편승한 연구자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바울 신학에는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호렐은 사회비평학적 관점, 페미니스트적 관점 등 바울 신학 안에서 여러 관점으로 신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들도 제시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바울서신의 진정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바울서신 13권 중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7권에서 빠진 6권,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이 왜 바울서신으로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해 적은 것이다. 호렐은 중간자적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바울서신의 진정성을 7권만 인정하는 듯 했다. 다만 6권의 위경(偽經)성에 대한 견해를 심하게 논박하지는 않고, 인정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울 신학은 더 꾸준히 연구가 확장되고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했다. 학문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관점 학파의 이론이 현재 대세이지만, 다른 관점이 대두할 가능성도 열어 놓는다.

그리고 더 많은 관점에서 바울 신학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술을 읽으며, 독자로서 한국 신약학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그것은 신약학 연구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바울서신의 진정한 권수를 밝혀 준다면, 신학 이해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바울서신’을 “7권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바울서신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바울서신’은 “7권”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스리뷰]

## “세계관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자신의 세계관을 판명하게 해주는 책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제임스 N. 앤더슨  
이래서원 | 200쪽

세계관은 마치 소뇌와 같다. 모든 사람은 소뇌가 있고 소뇌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자신이 소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책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독자는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그 여정 끝에서 자신이 대답한 내용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맞는 세계관을 만나게 된다.

저자는 그 세계관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세계를 바르게 보도록 인도하는지 확인하라고 도전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이 관점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관은 치열한 학문적 습득과 과학적 실험을 통해 알기보다, 우리의 삶과 문화와 생활양식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렌즈와 함께 공통적인 렌즈로도 세계를 조망하는 세계관을 발견한다.

또한 세계관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방향성이고 시대정신인데도, 학문적으로 풀려는 시도가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에 대해 멀어지게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필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책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여 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고, 그동안 내가 인간과 사회와 신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았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마음의 창문을 발견하게 해 준다. 네모난 창문으로 밖을 보면 세계가 그 틀에 맞게 보이고 동그란 틀로 밖을 보면 그 틀로 보이듯, 이 책은 나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와 진리와 선과 하나님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돼 있고, 2부는 범주로서 무신론적 세계관

과 유신론적 세계관으로 구분되는데, 유신론에서는 세분하여 유사유신론과 유한한 유신론, 그리고 비기독교적 유신론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원론과 관념론 그리고 기독교와 이신론과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범신론 등

우리의 안경이 되는 다양한 세계관이 설명되어져 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는다면, 실제로 믿는 것과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어긋나고 변질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렌즈는 교회를 더 파괴하고 꺼져가는 불씨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받는 사회와 사람들은 전혀 심령에 감동이 없는 탐욕의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대답하며 점검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해준다. 자신의 영혼과 인생이 어떤 문화와 배경을 통해 지금의 세계관이 형성되었는지 추적 또는 역추적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세계관으로 내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의 바른 렌즈를 확보하게 도와준다.

아울러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대륙을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데,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렌즈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대화하며 그들에게 대안적이고 희망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길 원하는 자에게도 이 기발한 책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 제임스 N. 앤더슨(Ph. D., 에든버러대학교)은 합동개혁장로교회(ARP) 소속 목사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리폼드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철학적 신학, 종교적 인식론, 기독교 변증론이 그의 전문 분야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동란노와 기도운동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안나가? 가나안!

신앙의 왜곡과 이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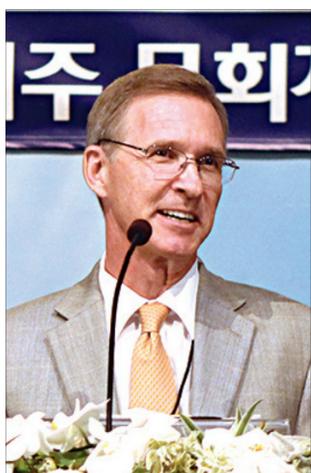
240면 / 11,000원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6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민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저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안되는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사탄의 세력지배자 264면 / 10,000원
- 레위기야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258면 / 11,000원
-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Dr. Scott Lemenager (left), Dr. Daniel Newman (center), and Rev. Kisup Kim (right) were among the speakers during the one-day seminar hosted by the Evangelical Church Alliance for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s on August 20.

## Korean Churches to Host 'Heal Our Land' Intercessory Prayer Gathering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that was hosted by Korean churches last November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is taking place once again, this year on October 23 at 5 PM at the same location.

Over the years, Korean churches have played a supporting role and participated in various prayer movements including in Billy Graham's evangelistic event in 2004,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Rose Bowl in 2011, the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in the Verizon Wireless Amphitheater in 2014, and the Azusa Now prayer gathering which took place earlier this year. However, last year,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hosted their own large-scale prayer gathering for the first time and invited leaders of other ethnic groups to join. This year will be the second such event.

Organizers said that the prayer meeting will be focused on repentance and revival in America according to the theme, 'Heal Our Land,' but added that they will also pray for the November elec-

tion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the prayer meeting will be held in late October this year as opposed to in November.

Representatives of several Korean Christian organizations were present at a press conference regarding the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August 18, including Rev. Paul Kihong Han,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KCCA); Rev.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SOON Movement, Fire Crusade, Here I Am Youth Movement (HYM), and others. Leaders of other ethnic groups, including African American, Latino, Arab, and White leaders who participated in last year's event were also present.

Last year, organizers estimated that some 3,500 attended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Rev. Ezra Kang said that organizers are hoping some 6,000 will attend this year, and particularly that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church members and leaders would participate.



Organizers of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hosted a press conferen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August 18.

## 'Your Labor Is Not in Vain' Pastors Encouraged to Persevere

BY RACHAEL LEE

The Evangelical Church Alliance (ECA) hosted a seminar for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s on August 20 at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in Pasadena, with speakers from various Korean churches as well as some non-Korean speakers such as Dr. Scott Lemenager from the ECA and Dr. Daniel Newman from Azusa Pacific University (APU).

Speakers shared personal stories of the struggles they have faced while being in ministry, and encouraged the attendees to continue persevering.

For Lemenager, who serves as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as the clerk of the standards and credentials committee in the ECA, ministry has taken multiple shapes and forms throughout the years, and it didn't always look the way he expected. When he and his wife went to the Urbana Conference in 1979, for instance, they felt compelled to become missionaries to Native Americans, he shared during one of the main sessions of

the one-day seminar. But to this day, he and his wife still have not had the chance to directly minister to Native Americans.

Instead, Lemenager has ministered in different ways, as he has served as the father of not only 10 biological children but also 14 foster children and 10 foreign exchange students, and has served in four different denominations, with experience as a presbytery clerk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PCA).

"We realized calling is not restricted to a particular people or place. God will make a way for you to take care of all of your needs and also allow you to minister in whatever place you are at."

"There is no small ministry with the Lord," he added, encouraging pastors to remain faithful.

Daniel Newman, who has also had experience serving as a pastor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gave a brief word of encouragement and commended the pastors for persevering under the difficulties of serving at immigrant churches.

"Your labor is not in vain; the

Lord sees you," said Newman.

Rev. Kisup Kim, the senior pastor of L.A. Sarang Community Church, was also one of the main speakers in the morning session, during which he shared the lessons he learned during his many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Previous to his current position as a senior pastor, Kim had served 10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at a church in Australia, and 10 years as an associate pastor at Sarang Community Church in Anaheim. He encouraged pastors, no matter what position or title they may hold, to continually have an open mind and a teachable heart, and to always have ownership over the church and each specific department as if they were "on interview with God" each day.

Meanwhile, some 400 out of 2,000 credentialed pastors in the ECA are those of a minority ethnic group, most of whom are Korean, said Lemenager. The ECA is an alliance of ministers that ordains and credentials ministers but also accepts ministers of other denominations.

## 'Jesus Retreat' Celebrates 30 Years, With Hopes to Raise More Leaders

A retreat for Korean American youth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es of the Reformed Church of America (RCA) in the New York region took place from August 14 to 17 in Pennsylvania.

Called the 'Jesus Retreat,' the event for young Korean Americans from 6th to 12th grade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egan in 1986, making this the 30th summer that the retreat will be taking place. Starting this year, all of the organizing staff of the retreat were either '1.5 generation' or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leaders.

Over the past 30 years of its history, the Jesus Retreat has built up leaders who went on to become organizers and staff of the retreat.

Paul Lee, a pastor who currently serves as a staff of the retreat, has never missed a retreat since the first one in 1986. All of the other staff are also former attendees of the Jesus Retreat.

"Initially, the purpose of the Jesus Retreat was just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and that in itself was a blessing," said Lee.

"The many blessings that I've received through this retreat has made me who I am, which is why I'm so thankful for it and which is why I have a big vision for this retreat."

Organizers of the Jesus Retreat also expressed hopes that the retreat would be a channel through which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and seminarians would be raised up. They shared that they hope to have scholarship programs for Korean American seminary students in the near future.



Attendees of the recent 'Jesus Retreat,' hosted by the Reformed Church of America, prayed for one another.

## When Looking for a New Church, Most Americans Are Attracted by Preaching

A vast majority (83 percent) of Americans are most influenced by the preaching when searching for a new church,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Pew Research Center, which focused on how often and why people choose to move to a new church.

About 50 percent of American adults said that they had searched for a new congregation at least at one point in their lives, most of whom cited moving to a new home as the reason for moving to a different church.

Some 79 percent of American adults looking for a church said that feeling welcomed by leaders was the next most important factor, other than preaching, in choosing a new congregation.

Style of services (74 percent) and location (70 percent) were other crucial elements in the choice of a new worship place.

Education for kids (56 percent), having friends or family in the congregation (48 percent), and availability of volunteering opportunity (42 percent) were other reasons considered important by those looking for a new congregation.

Only 19 percent said that they moved to a new church because of some theological reason or any dissatisfaction at the previous house of worship.

About 85 percent of the people looking for a new church attended the service first-hand before making a decision to join a church, while 70 percent had done so on recommendation of members of congregation or friends. Some 55 percent had spoken with clergy at the new church.

Only 37 percent had looked for the church information online before making the decision, while 19

percent had called the church.

About 28 percent of Americans said that finding a new church was not easy, and nearly 40 percent said they were not happy with at least one characteristic of the new church. Some 26 percent had theological differences with the church they tried to join.

Accessibility of churches (24 percent) was a factor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 new attendants to make it regularly to the church. Some 23 percent of the people were not satisfied with the fellowship at the new congregations they considered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findings of this report were based on Pew's Religious Landscape Study in 2014, which interviewed over 35,000 adults over the phone. An additional 3,000 people were added to further explore these religious trends.

## Greg Laurie to Share Message of Hope at 'SoCal Harvest'

BY RACHAEL LEE

SoCal Harvest, one of the largest evangelistic events in the country that is also known as the Harvest Crusades, will be taking place from August 26 to 28 for the 27th year at the Angels' Stadium in Anaheim.

Led by pastor Greg Laurie of Harvest Christian Fellowship, the three-night event has generally drawn tens of thousands of people each night. Earlier this year in March, Laurie hosted another evangelistic event called Harvest America in Arlington, TX, which drew some 82,000 people.

"Most church services are designed for worship, Bible study, or spiritual growth. We wanted to do an event that was designed, beginning to end, for a nonbeliever, so we could present what it is to be a Christian, who Jesus is, what he said, and how to come into a rela-

tionship with him," Laurie told the Los Angeles Times regarding when Harvest Crusades first began.

Laurie said that through the Harvest Crusades, he hopes to tell messages of "hope and turning to God and putting your faith in Him," and to remind attendees that God "gets you through the hardest times of life, [and] makes you stronger as a result," he told the Christian Post in 2014.

This year's SoCal Harvest will feature performances from musicians including Phil Wickham, for King & Country, Chris Tomlin, TobyMac, and others, and messages from Greg Laurie on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meaning of life?" and "What happens when we die?"

More than 5.6 million have attended Harvest events since its beginnings in 1990, the organizers say, and over 470,000 have made professions of fait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 Federal Facilities Directed to Grant Access to Bath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BY RACHAEL LEE

Several months afte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ssued a directive saying that public schools must allow students to use the bathroom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another federal agency has followed suit, extending that directive to federal buildings.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issued the notice on Thursday, saying, "Federal agencies occupying space under the jurisdiction, custody, or control of GSA must allow individuals to use restroom facilities and related areas consistent with their gender identity."

The notice also prohibits the federal buildings from requiring transgender individuals to use single-user restrooms, or only allowing transgender individuals who have undergone medical procedures to use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This new directive from the GSA will apply to some 9,200 federal facilities such as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s and courthouses in more than 2,000 cities across the country.

The initial directive issu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May said that bathroom acces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is required because the two agencies interpret the word "sex" i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of the education code to mean "gender identity."

Similarly, a GSA official told NBC News that the GSA's notice was issued

"to clarify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is prohibited as sex discrimination."

More than 20 states have sue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since May, arguing that the agencies ignor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issuing the directive and that the action was an overreach of power.



A photo of restroom signs at Charlotte Airport taken in 2009. A new federal directive requires federal facilities to grant access to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Photo: Francesco Mucio/CC)

## Target Announces Plan to Spend \$20 Million to Add More Single-Use Restrooms

Target has said it plans to spend \$20 million to expand its bathroom facilities, months after it announced its new restroom policy accommodating transgender individuals.

In April the company said that it will allow people to use the bathroom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This policy was objected by many, as an online petition started by the 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 to boycott Target received over 1.4 million signatures.

Target will now add single-toilet restrooms which can be used by those people who want privacy or those with small children, a spokesman said on August 17.

The AFA met with Target top officials and recommended the company to provide unisex bathrooms for transgender people, in addition to male and female restrooms already being provided. But Target did not agree with the AFA's suggestion.

Cathy Smith, Chief Financial Officer at Target, told reporters at a press conference: "It's clear that some of our guests like and some dislike our inclusive bathroom policy."

"Some of our guests clearly are uncomfortable with our policy," she added.

The company said that its main aim is to create an environment at Target which is perceived as safe by its customers.

However, Target is not changing its earlier bathroom policy permitting the use of restrooms in accordance with gender identity.

Target has about 1,800 stores around the country, out of which some 1,500 already have single-stall restrooms. By the end of this year most will have such separate facilities, and the remaining Target locations will be re-equipped by early 2017.

In July, a man who identifies as a woman was arrested for taking pic-

tures of a woman changing in an adjacent stall in one of Idaho's Target malls. He was charged with felony and faces up to 5 years in prison.

Protesters in San Antonio, Texas, demonstrated outside Target last week, holding placards such as, "Men don't belong in the Ladies room," and "Don't Target our daughters," according to local news reports.

One protester Norma Reyna said: "I've got nieces and nephews, and, nieces especially, and I'd be appalled if a man was ever in a restroom with them ... I would be afraid to let them go in there by themselves, so I'm walking away from Target altogether."

Another protester Craig Cihak said that he is not against transgender people, but against the bathroom policy.

"I love transgenders; I love all people, but I think it's not fair to put them in this situation, and we want also the other reason is to keep our boys and girls safe," he said.

## Asia Bibi's Last Appeal Date Against Alleged Blasphemy Charges Set for October

Asia Bibi, a Pakistani Christian who faces a death sentence for alleged blasphemy charges, will appear in her last appeal to Pakistan's Supreme Court in October.

The hearing is the last legal option left for her to overturn the death penalty by hanging, according to the religious freedom organization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She was sentenced to death by a local court in 2010 under Pakistan's blasphemy laws.

In 2009, an argument ensued between Bibi and a group of Muslim women when she drank from the same water as them.

She was accused of blaspheming, which she denied. But she was detained and arrested after the incident.

Her high court appeals were delayed

several times, and finally in October, 2014, one of the two judges confirmed her death sentence. But subsequently, she was granted an opportunity for legal review.

Her petition was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to be reviewed in July 2015. Her lawyer had said he hoped that the court would acquit Bibi.

Bibi's lawyer, Saif-ul-Malook, told the ICC: "I will appear before the Supreme Court of Pakistan and argue her case while she will remain in prison."

"I hope the result will be an acquittal," Saif-ul-Malook added.

If Bibi's appeal is rejected by the Supreme Court, only a presidential pardon can stop the execution.

Human rights groups in Pakistan say that the country's blasphemy laws are used to persecute minorities.

According to BBC News, her five children and husband are living in hiding because of death threats from fundamentalists. Also, many have pledged to kill her if she is released from prison.

She told her family when they visited her on Christmas Day last year: "Jesus made this happy day for me and has accepted my prayers. I'm excited and full of joy in meeting today my family and celebrate Christmas with you."

"Today [Dec. 24] is also the birth of the Islamic prophet Muhammad. Peace be upon him, on this day. Honestly, I could never even think of disrespect," said Bibi, according to the Christian Post.

Bibi added: "But, although I have been in prison for seven years, I do not hate those who did me wrong."

## China's Zhejiang Province Bans Prayer and Preaching in Hospitals

Chinese authorities in the eastern province of Zhejiang have banned all religious and prayer-related activities in hospitals, according to a report from Radio Free Asia. The pastors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visit hospitals to pray for the sick and preach in hospitals.

A notice to stop conducting religious activities and praying was put up last week in Central Hospital at Wenzhou, the Radio Free Asia report says. The city of Wenzhou is also referred to as the "Jerusalem of China" because of its high concentration of churches. It has been the focal point of evangelism in China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hospital where the rule was implemented was established as a Protestant hospital.

"Religious activities in hospitals have never been encouraged ... but some people have been doing it on the quiet, which is understandable, seeing that we

are all here to support patients," a hospital employee told Radio Free Asia.

"Some people were really giving it their all, praying aloud and reading out the Bible," the employee said. "That's not allowed."

"The order is shown to patients when they are admitted to hospital telling them that no religious activities are permitted in the hospital," she continued. "If they do that here, then the nurses and doctors will have a word with them."

According to Bob Fu, the founder of China Aid, the Zhejiang rule will be extended to the northern part of Inner Mongolia and the province of Anhui.

"Th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its persecution of religious believers to another level," he told RFA.

Recently, the state government in Pingyang county near Wenzhou implemented a new law requiring churches

to hand over all their tithes and income to the authorities.

The measures were seen as an effort by the government to rein in Christianity.

In April,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a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to express his views on religions and how they must be practiced in China.

He said that the groups shall "dig deep into doctrines and canons that are in line with social harmony and progress, and favorable for the building of a healthy and civilized society, and interpret religious doctrines in a way that is conducive to modern China's progress and in line with our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He added that the authorities must unite religious and non-religious people, and "guide those religious to love their country, protect the unification of their motherland and serve the overall interests of the Chinese nation."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 SUMMER 특별 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Limited Technology  
Packag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3,3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